

수용자들 감동 “가라 온 세상을 향해”



한동글로벌 학생들의 부활절 뮤지컬 공연 감동의 장

“목사님, “우리 학생들도 교도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동글로벌학교 서지훈 음악 교사의 요청으로 시작된 경북북부 제 2교도소 수용자 예배 공연의 시작이 2009년 4월로 시작하여 벌써 10년째를 맞이했다. 서지훈 교사는 2009년 4월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처음 공연을 시작할 때는 만사의 몸이었다.

긴장감으로 인해 구토를 하면서도 기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한 공연이 10회째가 되었다.

매년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지만 교도소 집회의 날씨가 다가올수록 학생들은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 힘들어하면서도 공연을 관람하는 수용자들에게 부활절 뮤지컬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

하여 공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2019년 4월 9일 학생들이 공연을 할 때 수용자들 중에선 이런 말도 했다 “목사님 오늘 공연은 가수들이 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연팀이 온다고 하니...” 웃기도 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가라 온 세상을 향해”이다. 공연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자 공연하는 학생들도 울면서 공연을 하

기 시작했고, 참관하는 교도관들 중에 천장으로 보는 분도 있었다. 수용자들 중에서도 훌쩍, 훌쩍 흐르는 콧물과 눈물을 닦아 낸다. 한 수용자는 옆에 있는 수용자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울지 말라고 하니” 그 수용자는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실지로 경북북부 제 2교도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엄중교도소이다. 어떻게 보면 피와 눈물이 없는 수용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심적 변화이다.

경북북부 제 2교도소 소장인 유동백 소장은 이런 말을 했다. “수용자가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고...” 게다가 “한동글로벌 학생들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 왔다. 감사하면서 학교 당국과 학생들에게 고맙다.” 라고 했다.

한동글로벌 학생들의 공연을 통하여 새삼 느끼는 것은 수용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청송에서 이기학 기자

사설

건국일과 국부론에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

인도 시인 타골은 대한민국은 ‘동방의 등불’로서 전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 고 예언했다. 3.1운동의 빛나는 정신과 국가 탄생의 노력을 일시정부(김구 선생의 1948.3.1. 쓴 ‘양심권’ 회호와 같이 건국과정으로 인식)를 세운 애국선열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그렇게 탄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의 올바른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할 수도 없었고 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임시정부를 그것도 본국이 아닌 중국 땅에 세워 그 목적이 현실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해온 것이다. 이는 마치 태종의 아기를 가진 것처럼 그래서 상해임시정부는 하나의 태명처럼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세계에 알려지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일본에 식민지가 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도 글도 이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태였다. 심지어는 1905년에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일본 영토로 지도에 넣어도 그 때 누구 하나 말을 못하였던 것이 오늘 날 일본은 자기들의 영토라고 하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세계는 특히 미국까지도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국부론이 광복절과 함께한 정부수립 74주년 기념식과는 별도로 건국 100주년 기념식 행사를 한다면 혼돈스러운 건국일이 온 국민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혼돈을 가져올 것이다. 마치 국가도 국제사회기구에서 인정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기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하라 할 것이다.

원 구두가 백 구두이 듯 수립이나 건국이나 다를 바 없다. 서로의 사관이 다른 견해로 논쟁이 된다면 이념의 편 가르기로 가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도 지식인들이 숭수선법하여 올바른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 가까운 나라의 일본인들은 9년 실수를 해도 한번 잘한 것을 칭찬 격려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아홉 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 혹은 자신과 다른 길을 가면 공파를 따지지 아니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처벌하는 것을 본다.

올바른 견해는 그 민족성을 바르게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또 많은 실수도 하였다. 그 중 휴전협정 장애가 된다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제거를 위한 에버-레디(Ever-ready) 비밀작전 같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반공을 최우선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한미 동맹의 조약’을 마련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 가장 가난하고 그야말로 불쌍한 나라를 잘살아보자고 하며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도 놀랄만한 경제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정치 이념에 매달려 그 이름조차 지우려는 대한민국 건국의 논쟁은 끝이 없어 보인다.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온 주권자인 국민의 보편타당한 정신과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이상 우리를 낫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을 가져야 한다.

홍성제일장로교회, 내포2성전 건축기공식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소재한 홍성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오종철)는 8일 오후 4시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954번지 내포 신도시에 대지 514평의 부지에서 본당 재건축 및 내포 제2성전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찼다. 기공식에 앞서 현숙 피택장로의 인도로 명봉란 장로가 기도를, 조봉천 목사의 성경 봉독, 최두은 목사가 성전을 짓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담임 오종철 목사는 “주님께 영광, 홍성과 내포의 복음화, 충남의 성시화를 위한,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는 주님의 몸 되신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이제 홍성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

당을 건축할 책임과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실 홍성제일장로교회 본당 재건축 및 내포 제2성전 건축이 기공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이라며 건축 기공을 선언했다.

이어 김동규 집사(건축위원)가 건축준비경과보고를 했고, 이시홍 장로(창시건축사)와 김중혁 목사(예영CM대표)가 설계 및 건축과정을 소개했다. 건축을 위한 축

복기도는 이교회 목사(원리교회)가 했으며, 격려사는 안세환 목사(홍덕교회)와 김경태 목사(내포중심성결교회)가 담당했다. 이날 김준민 어린이는 축하의 글을 낭독하고 “교회가 지어지면 내포초등학교 친구들을 다 전도하겠다. 5년 후에는 새벽기도회에서 반주를 하고 싶다.”고 말해 성도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종철 목사는 붓으로 “새로운 30년, 주님의 영광”이라는 글씨를 썼다. 건축 완공 후 교회에 전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종철 담임목사 내외를 비롯한 예배와 예식 순서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했다. 건축시삽은 오 목사 내외와 유치부, 어린이교회학교, 전체 성도들이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최현목 목사(천복제일침례교회)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오 목사는 본당 재건축과 함께 내포 제2성전을 아름답게 완공해 성시화운동을 통한 연합운동과 지역 선교를 위해 더욱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충남 도청이 들어서 있는 내포 신도시에 세워지는 내포 2성전이 완공되면 충남 성시화운동의 센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부활절 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보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딤후 2:8)

총신대 이사장	총신대 학장	총회장	목회대학원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이규필 목사	윤석철 목사	강대일 목사	서동기 목사	정호석 목사 (사랑교회)	윤웅섭 목사 (한빛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북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교회)	서재식 목사 (중성교회)	김주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정수 장로 (천복교회)

합동보수교단은 뜻을 같이 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한국기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강력 규탄

현재의 결정 용납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는 절대 안 돼

한국교회연회 대표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연회 대표 유만석 목사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 이제 현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현재의 이같은 결정에 무척 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며 이는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임대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오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 대표회장은 또한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현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한교총 대표회장 1 이승희 목사 2 박종철 목사 3 김성복 목사



또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된 헌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보고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번 현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오만한 판단임을 지적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생명을 저항할 수 없도록 존귀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순간부터 실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자아 권력의 남용이다. 잘못된 기준과 판단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

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소장 유남석



한편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현재 유 소장은 또 이제 현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은 뻔하다면서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며 우리 사회는 어떠한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쟁터가 된 산불 현장...



강원 고성과 속초 강능에 이르러까지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룻밤 사이에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잿더미가 된 곳곳에서 깊은 탄식과 한숨이 흘러나왔으며 급기야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여의도 크기에 맞먹는 산림과 건물, 주택, 자동차, 생명까지 앗아간 이번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주택이 40여 동과 창고와 비닐하우스 11동 소실되었으며, 주민 4천여 명이 인근 교회와 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한 상태이다.

불에 완전히 타서 무너진 건물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폐허가 되어버린 폐차장... 흡사 전쟁터가 방불케 하는 처참한 모습이다. 게다가 고성군 토성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당시 집 400채 이상이 전소되었으며 주민 500여 명이 4개 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과 속초시 경계에 있는 장천마을의 경우 마을이 모두 전소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몸만 빠져나온 상황이며, 따뜻한 하루는 실외와 고공에 빠진 강원 고성과 속초 강능 등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최대한 빨리 임시 대피소가

지정되어 전국에서 구호 물품이 전달되고 있다.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더유뿔 업체에서 바다워시 150mL 1만 개를 후원해 주었고, 경서농협(고척동), 신도림커뮤니티 카페에서도 직접 후원금과 물품을 보내주었다.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위로하며 특별한 기독교 단체와 교회는 기도로 많은 구호 물품 등으로 하루아침에 집도, 생업도 잃어버린 주민분들에게 용기를 전하자, 산불 피해 주민들은 막대한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이웃이다.

지난 4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화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강원도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경감을 빈다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구에 참여하자며 긴급 성명서를 냈다. 이어 사)한국교회총연합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대표회장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강원도민 돕기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교연 등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성명서를 내고 기도하며 강원도민을 돕는데 힘을 쓸 것을 주문했다.

기도의 능력 회복의 역사 “서로 사랑하라”

제68회 국가기도의날, 5월 2일 미 전역에서 연합기도



미국에서는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면 미국 전 지역에 걸쳐서 동시에 미국의 안위와 회복을 위해 기도회를 갖는다. 같은 날, 이곳 한인 커뮤니티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기도회를 개최한다. 특별히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올해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Love One Another)이다. 기도회는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미국 전국 초기부터 정해진 ‘국가기도의날’ (National Day of Prayer)은 아브라함 링컨과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확산되었고,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연방정부가 기도의 날로 정한 이래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기도회이다.

국가 기도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지난 27일(화) 오전 11시 나성순복음교회 EM 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번 기도회를 공동주최하는 남가주 교계 단체장 및 공동주관처인 미주성서화운본부(공동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와 나성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상우 목사(미주성서회 상임본부장) 인도로 김근수 목사(OC

한인목사회 회장)가 대표기도하고 한기형 목사(남가주 교협 회장)가 환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김시은 목사(미주성서회 총무)가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면서 ‘국가기도의날’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진유철 목사가 메시지 선포, 송정명 목사 인도로 ‘국가기도의날’ 준비를 위한 합심기도, 김관진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가 식사 기도 후 나성순복음교회 측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국가기도의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기형 목사는 기도회의 환영과 취지 설명을 통해 “미국사회의 저력은 기도의 힘에서 비롯됐다.”며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열매 맺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유철 목사는 에베소서 6

장 18절 성령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한다.”며 “영적전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기도이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국가기도의날’을 통한 합심기도가 미국과 한국을 살리는 영적 능력으로 나타날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우 목사는 이번 기도회부터 개최 장소 교회(단체)도 공동주관처로 함께 섬기게 되며, 장로를 비롯한 평신도도 기도인도자로 참여시킬 계획인데 기도 인도자는 각 단체로부터 2명의 인도자를 추천받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또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회장 소 목사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9퍼센트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출산을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간통죄 폐지에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리진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2019. 부활절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노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딤후 2:8)

주제 :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계 1:3절)

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전상열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정요한 목사 (꿈의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철장이 되자!

예장진리총회는 뜻을 같이할 개 교회 및 노회와 각 교단 가입을 적극 환영합니다.

총회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H.P 010-9621-9627

■ 靑松 건강칼럼 (686) 고령화와 통합의료

Better Health for All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19년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제44회 보건종합학술대회를 <Better Health for All: Aging & Integrated Care>를 주제로 4월 5-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했다.



靑松 박명복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대한보건협회(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는 보건분야 24개 회원학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11개 회원학회가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공중보건분야 중요한 과제를 가운데 미세먼지, 금연, 중독, 환자안전, 의료기술평가, 빅데이터 활용, 보건교육사 역할 등에 관하여 학회별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월 5일 오전 Plenary Session은 <고령화와 통합의료>를 주제로 일본의 하세가와 교수(Prof. Tomonori Hasegawa of Toho University), 홍콩의 유엔 교수(Prof. Peter P. Yuen of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싱가포르의 푸아 교수(Prof. Kai Hong Pua of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그리고 우리나라 한동은 교수(Prof. Dongwon Han of Hanyang University) 등 보건정책 전문가들이 국가별로 고령화에 따른 보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4월 6일 오전 Plenary Session은 <임종기 돌봄과 연명의료>를 주제로 대한노인병학회 박현욱 박사가 '임종 돌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허대석 교수가 '연명의료' 그리고 정현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를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 장수국(長壽國)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구(WH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平均壽命)을 기준으로 할 때 82.7세로 세계 9위에 올라 전년 12위에서 3단계 상승했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6세로 일본(87.1세), 스페인(85.7세), 프랑스(85.7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질병이나 부상 및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수명(健康壽命)은 남성이 70.7세, 여성은 75.1세로 남녀 합친 건강수명은 73세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치매(癡?) 인구는 5년 후면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치매 환자와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급증과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복,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설 즈음인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령자(高齢者)가 거주지에서 그대로 지내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 포괄케어'를 시작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生老病死) 과정을 거쳐 죽음에 직면한다. 사망자의 약 70%는 질환에 의해 사망하며 약 30%는 급사(急死)한다.

죽음(Good Death)이란 존경과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대해지는 것, 통증이나 다른 증상에서 해방되는 것, 친근한 환경 안에 있는 것,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것 등이다.

주요국가 사망자의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비율은 네덜란드 29.1%, 스웨덴 42%, 미국 43%, 영국 49.1%, 프랑스 57% 등이며, 일본은 75.8%로 비교적 높다.

임종기(臨終期) 환자가 회생(回生)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좋은 죽음(Good Death)이란 미국인은 '통증으로부터 해방' '영적인 평화'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정신적인 각성' 등을 꼽았다.

'의료진과 좋은 관계' 등을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일본인은 좋은 죽음을 '신체 및 심리적 편안함' '희망하는 곳에서 임종' '의료진과 좋은 관계' '희망과 기쁨 유지'라고 생각한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탁월한 정치가이며 웅변가,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키케로(Marcus Cicero, B.C. 106-43)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라고 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죽음학'을 강의하는 셸리 케이건(Shelly Kagan) 교수는 사람들이 죽음을 회피하는 이유로 4가지 이유를 꼽았다.

한국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무관심과 부정, 회피, 혐오인 경우가 많다. 이에 평소 죽음에 관해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다가 본인이나 가족, 주변인의 죽음이 닥치면 당황해 한다.

죽음교육(death education, 죽음의 준비교육)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교육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기를 싫어하고 더욱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음을 향해 나아가고 죽음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홍성선 목사 마약정보학박사NGO 세계기독청 설립이사장

폐와 심장질환의 변화: 폐의 염증, 기침 심장과 폐수상 폐암발병 증가 면역력 약화, 감기, 독감,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증가

소화기 계통과 생식기 체계의 변화: 식욕 증가, 그로인한 체중증가 임신부에게 있어서 사산과 태아기형의 증가 호르몬 수치변화, 그로인한 심대의 정성적 성장발육의 영향

마리화나 사용자들은 느린 반사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갑작스런 불안감과 과대망상증 즉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합리한 혹은 뚜렷한 의심을 갖게 된다.

성장 발달의 위험: 십대들에게 마리화나는 생식기관에 대한 유체적 위험에 빠지게 한다.

마약 영향권 내 운전으로 인한 결과 위험: 마리화나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마리화나가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의 어려움, 즉 거리감각 장애, 손상된 판단력, 그리고 느린 반사작용으로 인해 위험해 질 수 있다.

흡입제들은 냄새를 코로들이 마시거나 흡입으로 인해 향정신성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남성호르몬 동화작용제 스테로이드는 남성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한 합성물질이다.

(다음호에 계속)

죽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대안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포어: 좋은민남 행복안성도(신 33:29절) 강사 박수영 목사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 모집요강 WRTS 세계로신학학술원

대안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포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사)한기보험, 제9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 및 세미나 가져

한국교회의 성도들, 표준 이단분별 가이드라인 정해 강력 퇴치해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에서 지난 3월 26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본부 비전센터에서 1부 예배, 2부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 3부 제9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1부 예배는 법인이사 김영호 목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배정희 목사(예복부흥신학이사)가 기도, 성경봉독(요 5:48)에 문해숙 목사(예장(보수연합)총회), 특송에 강현주 찬양사역자, 현금기도 김 건 목사(예장(합동제일)총무),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 순으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설교에 나선 박영호 목사는 마 5:48절을 중심으로 "언약과 신격화 신학"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박영호 목사는 언약(1643-1723)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이 임마누엘 신학과 신격화 신학을 강조했다. 신격화 신학(apotheosis)은 성령의 임재와 사역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로 구원 사역의 증생과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신학을 말한다.

신격화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여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며, 아버지라 부르며 삼위 하나님의 불멸 생명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라"(엡 4:13)까지 달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되어 가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1. 신격화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2. 신격화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이다. 3. 오직 하나님께서 신격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 신격화는 삼위일체적이다. 5. 성육신-신격화 공식은 중요하다. 6. 신격화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와 관련된다. 7. 신격화 교리는 실천적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예전적이다. 8. 신격화는 종말론적이다. 위의 8가지의 강의를 인터넷방송 JTNTV 및 CPJ방송을 통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다. (http://jntv.kr) 또는 http://cpj.kr 동영상 통해 자세히 시청할 수 있다.

2부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에서 강사 김철웅 목사는 강의안을 제공하고 강의를 시작했다. 김 목사는 "표준 이단분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단 대책 패러다

임의 전환- 10가지의 제목으로 열변을 토했다. 각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내용들이다. 김철웅 목사의 강의가 역시 (http://jntv.kr) 또는 http://cpj.kr에서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시청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듣고 배우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날 한기보험 비전센터에서 열린 제9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는 법인이사 공동회장 이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중부지회장 진공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 교단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단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단 사이비 집단을 퇴치하는 데 유익했다며 이를 계기로 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며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데 힘써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마르투스부흥협의회 대표회장 및 임직원 위촉식 가져

고충진 목사, "일곱 촛대와 일곱별" 말씀선포 해

마르투스부흥협의회(대표회장 고승곤 목사)는 지난 25일(월) 오전 11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낮은교회(담임목사 고정순)에서 본 협의회 대표회장 및 임직원 위촉 감사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났다.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안효근 목사가 기도, 국민일보 국민비전부흥사업회의 실무총재 고충진 목사는 요한계시록 1:19~20절을 본문으로 "일곱 촛대와 일곱별"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 홍혜선 목사가 봉헌기도를, 축사에 김인순 목사, 광고 임영성 목사, 고충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마르투스부흥협의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에 고승곤 목사(바울교회), △강사단장 임영성 목사(주님의교회) △서기 심진주 목사(주기쁨교회) △회계 홍혜선 목사(바울교회) △상임회장 고정순 목사(낮은교회) △실무회장 장에스터 목사(샘솟는교회) △실무회장 김하은 목



사(에스리수양관) 등이다.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 프로필
다바르(Dabar) 성경연구원장, 마르투스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국제이주자선교포럼 연구위원, 국제선교재단 실무회장, 한국기독교영성운동총연합 실무회장, 세계복음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국민비전부흥사업회의 상임부회장, 세계로열린축복방송 선교총재 등을 맡고 있으며 저서는 1권 하나님(God) 나라의 비밀, 2권 하나님(God)의 손 안에 등이 있다.

또한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는 마르투

스(martus)는 히브리어로 '소생시키다'는 뜻으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는 소명감을 갖고 사역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부흥사 양성, 신앙교육, 영성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마르투스부흥협의회는 오는 4월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21일까지 상임회장 고정순 목사(낮은교회)에서 신유 특별성회를 갖는다.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 상임회장 고정순 목사, 회계 홍혜선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교총 평화통일위원회, DMZ 손잡기 참여 독려

"4월 27일(토) 교회별 소풍기는 기쁨으로 참여해 달라."

한국교회총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윤마태 목사, 찬양사역부교회 담임)는 4월 27일 진행되는 'DMZ민(民)가 평화 손잡기' 행사에 참가한다. 지난해 4월 27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민간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DMZ 손잡기 행사는 비무장지대 둘레길 500킬로미터를 50만 명의 국민들이 손을 잡고 띠를 연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윤마태 목사는 "이번 손잡기 행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며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분단 70년을 넘긴 민족 분단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몸부림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목사는 "이번 행사의 취지는 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별로 소풍가는 마음으로 기관별, 가족별로 참여해주시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며, 기도를 모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1시까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북삼교 옆에 마련된 임시 주차장에 도착하면 주최측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02)744-6200

축 2019 부활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19 번성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강권하여 테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34(갈마동 336-22)
☎교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jk2863@hanmail.net

지저스 JTNTV 대구에서 이사회 열어

JTNTV 지저스타임즈(이사장 허창범 목사)는 대구 행복샘교회(박수영 목사)에서 지난 3월 22일(금) 오전 11시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업협의회 월례회를 갖는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내외 지사 및 MOU를 체결한 해외 신문방송을 위하여, 문서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사무총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세종시 열두광주리기도원 원장 김경호 목사(세종지사 및 본사 상임이사)의 기도, 꾸미오리 김철웅 목사(운영이사/실무회장)의 위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는 요 12:24~25절을 중심으로 말씀 선포했다.

이어 운영이사/실무회장 임찬미 목사가 현금기도를, 상임이사 임요한 목사, 상임이사 이선한 목사가 각각 축사를,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의 인사 및 전국 지사장, 임원들, 순서를 맡은 언론 관계자를 소개하고,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의 광



고교 있었다. 특별기도 순서로 ①신문 본사 & JTNTV, CPJ방송 운영을 위하여, ②국내외 문서선교를 위하여, ③본사와 MOU를 체결한 교단과 해외방송사들을 위하여, ④이사장, 사장, 이사, 기자, 설기는 교회를 위하여, ⑤국가의 안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⑥장소를 제공한 행복샘교회

와 담임 박수영 목사를 위한 기도회를 끝으로 부이사장/부총재 정대성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 및 기도회를 마쳤다.

2부 이사회는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가 급한 개인 사정에 의하여 위임한 관계로 모든 안건은 차기 모임에서 다루기로 하지는 이사들의 긴급회의로 회무를 주기도문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표어: "주께서 하십니다"

- 축 부활 -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시 30:11)

예/배/안/내

대 예 배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유치부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수요일예배 오후 8시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주일예배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30분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 야 기도회 매일오후 10시(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 JIN WOO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TV 가정예배 칼럼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934-1232(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 : (02)934-1232

경찰선교에 앞장선다는 이창식 총회장!



경찰과 60만 경찰 가족 복음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

을 심어주기 위해 육지, 해양, 하늘 등 전국적으로 시민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경찰복음화는 민족 복음화에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복음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치안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되어 있는 나라이다. 경찰선교의 시작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후 국립경찰이 창설되면서 각 지역에서 목회를 담당한 목사님들이 각 경찰서에 수시로 찾아가 유치인 방문예배를 드리면서 태동되었다.

특히 흥 총장은 경찰선교에 관한 것과 그간의 연역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1) 1960년 초부터 지역사회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인교회의 목적 아래 경찰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2) 1966년에 경복제도 창설(김복환 장로 내무부 차관 재임 시) 되었다. 3) 1966. 5. 21. 서울 시장의 명의로 서울시경 경복 위촉 김창진, 조항표, 조동혁, 최종애, 김영모 박창현, 정인상, 김형표, 조승근, 한재호, 노기원, 박실영, 윤성렬, 한기모, 이재은, 이문복, 황대준, 주병하(계18명), 4) 1969. 6. 20. 경부 130-11294 내무부 치안본부 내규로서 경찰위촉 목사 운영규정이 전국적으로 하달되어 정식 경복 위촉을 실시하게 되었다. 5) 1972. 3. 21. 치안본부 경부 130-144호와 (1974년 1월 14일) 교경협의회 조직 활용의 공문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각 경찰서 단위 협의회와 18개 교단대표로 교경중앙협의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6) 1968. 1. 4. 서울특별시 경찰국 경복실이 개설되었고, 1981년 1월 7일 치안본부 경복실이 개설되는 등 전국시도 단위 경복실이 개설되었으며 경복목들이 상주 하면서 경찰선교가 활발하게 진행 된 것이다.

7) 2003년 6월까지 전국 시, 도 경복실장자가 전국경복 조직을 해오다가 구속력이 전국 경찰서까지 하는 조직체로 갖기 위해 2003. 6.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약 300명 경복목들의 모임에서 제27회 전국시도경복 실장회를 전국경복총회로 승격하여 전국 경찰서까지 조직하여 이상오 목사가 제1대 총회장으로 부임했으며, 총무로는 조태경 목사가 위임되었다.

8) 2005. 7. 5. 은혜와진리동산에서 제28회 (2차) 정기총회를 갖고, 조몽목 목사를 제2대 총회장으로 부임하고, 총무는 김종순 목사가 선임되었다. (일부 규약 개정하다)

9) 2006. 7. 11. 제29회(3차) 은혜와진리동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조희제 목사를 제2대 총회장으로 선임했다.

10) 2007. 6. 4~5. 기독교백주년에서 제30차 정기총회(4차)에서 전국경복총회를 한국경복총회로 총회명칭을 개정하고 임신형 목사를 제30대 총회장으로 선임했다.(일부 규약 개정하다) 11) 2008. 7. 14. 제31차 정기총회(5차)에서 임신형 목사를 제31대로 총회장으로 재임하고 총무는 홍향표 목

사가 선임되었다. 12) 2009. 6. 1. 서교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6차)로 모여 원현영 목사를 제32대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13) 2010. 6. 21. 한국 기독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7차)에서 이남용 목사를 제33대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14) 2011. 5. 8. 총회장 이남용 목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지병으로 소천하여 허 식 목사가 총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15) 2011. 6. 8. 파천 총신교회에서 제34차 정기총회(8차)를 갖고 총회장 허 식 목사를 선출하고 총무는 홍향표 목사가 연임하게 되었다. 16) 2012. 7. 5.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제35차 정기총회(9차)를 갖고 총회장 허 식 목사가 선출되었다. 17) 2013. 6. 13. 함께하는 교회 본당에서 제36차 정기총회(10차)를 갖고 총회장 이상재 목사를 선출하고 임원들과 회기를 시작했으며, 제18대 경찰청장 이상한 치안총감에게 임원조직과 선교행사, 정관을 등기로 보고하고 시작했다.

18) 2014. 7. 7. 대광교회 본당에서 제37차 정기총회(11차)를 갖고 총회장 김진수 목사, 총무 홍향표 목사를 선출하고 경찰청에 보고하고 회기를 시작했다. 제19대 경찰청장 강신명 치안총감에게 임원조직과 선교행사, 정관을 등기로 보고하고 시작하였다. 19) 2015. 7. 7. 동대문구 대광교회에서 제38차 정기총회(12차)를 갖고 삼임회장 허 식 목사를 선출하고 제19대 경찰청장 강신명 치안총감에게 임원조직과 선교행사, 정관을 등기로 보고하고 시작하였다.

20) 2016. 2. 25.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39차 정기총회(13차)를 갖고 총회장 최현기 목사를 선출하였다. 제20대 경찰청장 이철성 치안총감에게 임원조직과 선교행사, 정관을 등기로 보고하고 시작하였다. 21) 2017. 2. 27. 본 총회 강당에서 제40차 정기총회(14차)를 갖고 명예총회장 박 중식 목사를 선출하고 총장에 홍향표 목사

를 선출하고 회기를 시작했다. 22) 2018. 2. 6. 본 총회 강당에서 제41차 정기사무총회(15차)를 갖고 명예총회장 박중식 목사가 연임되었다. 위와 같이 제41회까지 한국경복총회가 경찰선교를 힘 없이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 이창식 총회장은 경찰선교를 위한 경복목들의 활동에 대해 조직 현황을 말한다.

총회장 이창식 목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전국 지방경찰청 경복 총대들과 경찰서 경복 총대 또한 전국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254개(5명) 경찰서(5명), 기동대(5명), 경찰대학(5명), 경찰이재개발원(5명), 중앙경찰학교(5명), 경찰수사연구원(5명), 도로교통공단(5명), 경찰병원(5명)의 (정식경복 5명)씩 위촉하고 교회와 경찰협회를 두고 경복사업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복음화 운동에 적극 협조 해주신 민갑룡 경찰청장과 치안현장에서 지금도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15만 3천(경찰 13만 해양경찰 1만3천) 경찰과 60만 경찰 가족을 경찰선교 대상으로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경복 제도는 1966년에 창설되어 54년간 경찰선교를 해오던 중 한국경복총회가 지난 2019년 2월 42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특별히 2019년 이 한해도 나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15만3천 명과 경찰 가족 4인 으로 약 60만을 전도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복총회는 2003년 6월 30일 전국시도 경복실장회 27회에 총회에서 전국경복총회를 한국경복총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8년 2월 정기사무총회(제15차 총회)까지 경찰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자-경찰선교에 관한 정체성과 목표가 있다면 그구상을 말씀한다면?

총장 홍향표 목사, 네=> 이제는 이창식 신임총회장을 중심해서 한국 경복목들이 하나로 조직이 되어 경찰서 및 지구대, 기동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뜻 깊은 경찰선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정보화 시대에 한국경복총회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기에 국내 선교는 물론 세계선교에까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경찰선교 정책을 교회와 경찰, 더 나아가 경찰 가족 그리고 일반 교우들에게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장점을 살려 시, 도 경찰서, 기동대 경복 및 낙도오지 지구대 경찰 가족 간의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E-mail을 통하여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도 각 경찰서 및 산하 파출소 기동대 기관 단체를 그리고 국내외 선교까지 신속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경복총회가 믿지 않는 경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로 연결되는 정보와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국 경복 조직 실태를 파악하고 전국 지방청, 경찰서, 기동대를 대상으로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경복총회 총회장 이창식 목사는 지난 4월 9일 오후 5시 임원들과 함께 해양경찰청을 방문하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접견하였으며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4월 11일은 총장 홍향표 목사와 임원들과 같이 남부구치소를 방문하고 수감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갖는 등 담담 안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축복을 기원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총회장 이창식 목사님과 총장 홍향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경찰청, 한국경복총회 총회장 이창식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 연지동 소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열고 경찰선교에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앞장서온 이창식 목사가 신임총회장에 만장일치 추하 속에 선출되었다.

신임총회장 이창식 목사는 지난 3월 28일 임원회를 소집하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2층 그라운드에서 한경총 제42-1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국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254개 경찰서 기동대,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의 경복 등, 15만 3천 경찰과 60만 경찰 가족 복음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경복위원들의과의 덕담을 나누어졌다.

신임총회장 이창식 목사는 총장 홍향표 목사와 함께 지저스타임즈 및 JTNTV 대표이사 정기담화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이창식 총회장과 홍향표 총장을 이 시대의 인물로 선정하고 대담을 가졌다. 인터뷰에 앞서 흥 총장은 경찰선교와 교정 선교에 대한 유래와 경찰청 한국경복총회를 소개하면서 본 총회가 설립된 취지와 연역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총장 홍향표 목사는 평소 경찰선교에 대해 지난 40여 년을 기도와 헌신으로 마치 자신을 타오르는 촛불처럼 경찰선교에 매진해 왔기에 누구보다도 경찰 연역에 생각이 깊다. 흥 목사는 경찰의 날 그 유래를 이렇게 말한다. 경찰의 날 그 유래와 배경은 1957년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육신적인 생명의 안전과 국방이라면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의 치안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강도가 판을 친다면 영적으로도 이단 사이버들이 판을 치는데, 국민의 생명과 육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안을 지키는 경찰들의 영육적으로 건전한 생각



2019년 부활절감사 경찰청 • 한국경복총회

표어 : 대한민국 15만3천(경찰 14만 해양경찰 1만3천)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총회장 이창식 목사	28대총회장 조몽목 목사	30-31대 총회장 임신형 목사	34-35대 총회장 허 식 목사	36대 총회장 이상재 목사	37대 총회장 김진수 목사	39대 총회장 박중식 목사	고문 김종순 목사	고문 권다윗 목사	부회장 김항표 목사	부회장 박홍호 목사	부회장 천병호 목사	부회장 김명광 목사	부회장 남기덕 목사	부회장 이기웅 목사	부회장 김길수 목사	부회장 조규성 목사	
총장 홍향표 목사	정기념 목사 정기남 목사	전대구 목사 전대구 목사	권일두 목사 권일두 목사	김낙신 목사 김낙신 목사	박용준 목사 박용준 목사	홍재홍 목사 홍재홍 목사	장지철 목사 장지철 목사	임용환 선교사 임용환 선교사	박용숙 목사 박용숙 목사	홍성익 목사 홍성익 목사	육옥진 목사 육옥진 목사	우영문 목사 우영문 목사	양미상 목사 양미상 목사	정운성 목사 정운성 목사	박재영 목사 박재영 목사	빙광민 목사 빙광민 목사	이진호 목사 이진호 목사
총장 홍향표 목사	중임위원 정기념 목사	중임위원 전대구 목사	중임위원 권일두 목사	중임위원 김낙신 목사	중임위원 박용준 목사	중임위원 홍재홍 목사	중임위원 장지철 목사	중임위원 임용환 선교사	중임위원 박용숙 목사	중임위원 홍성익 목사	중임위원 육옥진 목사	후원이사 우영문 목사	후원이사 양미상 목사	후원이사 정운성 목사	후원이사 박재영 목사	후원이사 빙광민 목사	후원이사 이진호 목사
총장 홍향표 목사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	김진욱 위원 김진욱 위원	문재영 위원 문재영 위원	박관수 위원 박관수 위원	이수학 위원 이수학 위원	이준우 위원 이준우 위원	허수영 위원 허수영 위원	이기범 위원 이기범 위원	임이석 위원 임이석 위원	하종용 위원 하종용 위원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	홍문진 위원 홍문진 위원	성산모 목사 성산모 목사				

한국경복총회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나길1. (사랑의교회/사도영성신학원) 총장 : 홍향표 목사 010-7585-1955, <http://www.gapck.or.kr> 홈페이지 사이버경찰청 주요사이트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축 부 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www.mokpodream.org

2019년 2명 이상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담임목사 이 요셉

예배시간

주일 1부예배 (1일) 오전7시30분	주일 2부예배 (일) 오전 11시
주일밤 찬양예배 (일)저녁7시30분	삼일밤예배 (수)저녁7시30분
금요철야예배 (금)저녁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오후기도회 오후 3시 : 저녁기도회 저녁9시 : 철야기도회 새벽0시30분	

주소 : 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061-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1번, 600번



2019년 축 부 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http://www.mokpojuan.com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담임목사 모 상 련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 모정선 박민수 성삼수 모성온
전 도 사 : 추정희 송선택 편공소아이(베트남:신학유학)
파송선교사 : 임재선(베트남) 김은미(베트남)
안윤기(캄보디아)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미얀마) 백현주(미얀마)
송영관(태국) 최문정(태국)
김미경(아프리카(00국))

시 무 장 로 :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선호 모상후 송현중

협 동 장 로 : 이병화
은 퇴 장 로 : 고재련 원복희 장광호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부활의 기쁨 감사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28:6)

축 부 활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19년도 교회표어
평강이 넘치는 교회(요 20:21)

부 목 사 : 김미경 협동목사 :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 안중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 이창수, 은퇴장로 : 궁재룡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담임 허창범 목사
신학박사/교육학박사(예정)웨신 총회장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 오전 1부 8:00
2부 9:00 3부 11:30
주일오후 : 오후 1:30
수요일예배 : 저녁 7:00
새벽예배 : 5:00
금요철야 : 저녁 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 안길 47. (영무예다음 2차 후문 앞 수완중 옆)
TEL : (062)953-4620 H.P : 010-8604-6075

바울선교신학연구원(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푸른솔협동조합(상담및대안교육전문) 푸른솔노인복지센터

